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시아 로잔 대회 준비 순조롭게 진행

-8월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제5차 아시아 로잔 대회 ALCOE V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의 준비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대회 준비위원장이 이종윤 목사에 의하면 아시아 22개국에서 12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된다고 한다.

강사진은 이미 교섭이 완료되었고 각 나라별 추천위원을 선정하여 대표단 추천을 받고있는 중이다. 3월초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0명을 선발하여 초청장을 발송케

된다. 이 대회 운영을 위한 우리 교회 조직 책임자인 박철훈 장로에 의하면 민박을 준비하여 100명의 참가자들을 수용하고 강사진 20명은 호텔에 유치할 것을 계획한다고 한다. 특히 미개발 도상국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인지라 여비 도움도 필요하다.

한 구좌를 500\$(60만원)으로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로 한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세례교의 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할 이들이 많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역자 사택 마련하다

-입당 후 또 하나의 경사-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과 동시에 예배당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도하면서 교역자를 위한 사택은 우선 순위에서 미뤄 놓았었다. 권사님들 몇 분의 개인현금으로 당회장 사택은 셋집을 얻을 수 있었으나 부교역자들은 자기살 집을 갖고 오시는 분을 청빙키로 하고 교역자를 모셨다. 그후 교역자들의 교체가 있어 교회가 셋집을 얻은 때도 있었으나 오정수 장로가 제공한 답십리 주택(2세대)과 조은주 집사 부친이 제공한 논현동 주택(2세대)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망교회의 박래창 장로가 제공한 논현동 주택(2세대)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당회장 거주 사택이 경매에 붙여져 교회인근에 있는 빌라 1채를 매입하고 교회설립 10년만에 사택을 마련케 되었다. 최근 논현동에 거주하던 부목사님들의 사택이 소유주의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워야 할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교회는 오금동에 연립(4세대)주택을 매입케 되었다. 또한 새로 부임한 두 분을 위하여

는 거여동에 빌라 2채를 매입하였다. 오정수 장로가 제공한 답십리 주택에는 두세대가 아직 거주하고 새로 매입된 오금동 연립에는 두세대만 입주케 된다.

이름	주소	전화
이종윤 목사	강남구 대치동 노빌리티 1017-1 701호	539-3990~1
이성득 목사	송파구 오금동 115-9 301호	미정
정윤돈 목사	송파구 거여동 10-1 흥진빌라 401호	401-5407
고경선 목사	동대문구 답십리동 30-84	2247-1527
이규정 목사	송파구 오금동 115-9 201호	미정
김운호 목사	송파구 거여동 18-3 보온빌라 201호	401-5408
윤영국 목사	동대문구 답십리동 30-84	2249-8407
지혜영 전도사	미정	미정

고등부 겨울수련회 일정변경

2월25일~27일까지로 1주일 연기

고등부의 겨울수련회 일정이 변경되었다. 당초 2월18부터 3일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육부 사정으로 고등학교의 봄방학이 늦어져 1주일 연기하게 된 것이다.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3일간 교회에서 이종윤 목사와 이태훈 전도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빚진 사람"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며 수련회 첫날인 25일은 학생들이 집회후 귀가하게 되고 둘째 날인 26일 교회에서 1박을 하는 것으로 수련회 일정이 계획되었다. 수련회비는 10,000원이며 26일은 교회에서 1박을 하므로 간단한 세면도구가 필요하다. 참가를 원하는 고등부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부로 신청을 바란다.

2002 장년부 수련회

22일(금)오후 8:00-23일(토)오전 1:30

장년부는 교회에서 연합하여 2002년도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이종윤 목사를 모신 가운데 개회예배를 갖고 각 부서별 소개와 부서별 성장전략 수립, 기도회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세기 노회 정책사업 계획을 위한 모임

서울강남노회는 21세기 노회정책사업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22일(금)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지금까지 총회차원에서 진행되던 많은 사업들이 올해부터 노회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세미나를 갖게되는 것이다.

한국성경신학회

-제9차 논문발표-

한국성경신학회(회장 황장기)는 제9차 논문 발표회를 18일(월)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G.메이첸의 신약주해와 신학이라는 주제 하에 이종윤 목사는 '메이첸의 바울 신학이해'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다.

대학부 겨울수련회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

대학부는 2002년 겨울수련회가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종윤 목사와 김운호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2월 18일부터 20일 까지 경기도 가평 송동 기도원에서 진행된다. 대학부 지도교역자 김운호 목사는 이번 수련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2박 3일간 말씀과 기도, 찬양과 친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하며 많은 대학부원과 전도를 원하는 지체들의 참여와 전교회적인 기도의 후원 부탁드리고 있다.

· 모임시간 : 2002년 2월 18일 아침 9시

· 모임장소 : 교회 1층 로비

· 준비물 : 경건한 마음, 성경책, 필기구, 회비 25,000원, 침낭, 세면도구 등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개역개정판 출 20:4-6)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but showing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NIV Ex 20:4-6)

이사야 강해

유대의 죄

(이사야 57장 1 - 13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는 정치를 부패하게 하고 백성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가장 천박한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 무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부와 야심과 환락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일을 포기하기 않고 지극히 작은 성공에도 만족하고 계속 그 일을 쫓고 있습니다.



이종운 목사

1. 원악한 세대는 의인을 핍박한다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어도 관심을 두는 자가 없으나 실상 그 의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화를 피하여 미리 간 것입니다(1-2절). 의인은 '진실한 아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죽는 것을 본문에서는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1절), '불리어갔도다'(2절), '평안에 들어갔나니'(2절),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2절)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 부르시며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기됩니다.

2. 유대의 죄악을 지적함(3-13절)

선지자는 악한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3절). 무당의 자식이란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죄를 말하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란 육신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 간음자요 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1) 하나님을 희롱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4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므로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민다는 희롱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물었다고는 하나 허락 받은 바도 없이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2) 패역하고 거짓을 행했다

진리를 거스른 패역의 자식, 속이는 거짓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갔으니 패역이고 저들의 삶의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우상숭배 의식을 거행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5절).

상수리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일찍부터 우상시 되었던 나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푸른 나무'를

이스라엘이라는 농신(農神)에게 바쳐 그 나무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수리나무 숲이나 푸른 정원에서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들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둥근 돌을 세우고 거기에 도유의식을 행하면서 돌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4)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소득을 기대했다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뿔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재미 뽑아 얻은 것이라"(6절).

여호와와 그들의 기업어거늘(수 13:33) 그들은 우상을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5) 우상숭배가 만연되었다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7절).

우상숭배는 본래 낮은 골짜기에서 행하는 법인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높고 높은 곳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침상을 펴고 우상과 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써 붙이고 기억해야 할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기념하는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설치했습니다(8절).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8절).

파렴치한 우상주의를 음녀나 창기의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는 정치를 부패하게 하고 백성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가장 천박한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 무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부와 야심과 환락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일을 포기하기 않고 지극히 작은 성공에도 **만족**하고 계속 그 일을 쫓고 있습니다.

(6) 이방나라의 도움을 우상처럼 바라본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9절).

몰렉은 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물을 가지고 이방에 나가며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애걸하기 위해 먼길을 왕래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판단이 흐려

지면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7)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형식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것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11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단 것을 주장하며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죄를 쌓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롬 2:4-5).

3.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며 우상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12절).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 행위에 대한 풍자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곧 그들에게는 의가 없고 우상을 섬긴 죄만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라'고 풍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자가 아닙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라'는 말은 아무리 보아도 저들에게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13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우상이 저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13절).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 자들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참석지들과 함께

이경선 집사(교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면서 성경통독사경회는 시작되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깐동안의 휴식과 점심시간 외에는 신약전서 260장을 따라온 식으로 통독하였지만 사실은 100M 단거리를 필사적으로 달리는 선수처럼 초 긴장감으로 웨스트민스터 홀을 가득 채웠다. 여덟분의 교역자들이 말씀을 읽어내려 갈 때 발등서부터 무릎으로 가슴위로 차오르는 진한 감동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자란 삶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

씀 외에 달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족하나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하루, 반나절을 성령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선균(대학부)

올해에도 설에 성경통독사경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평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설 때 놀지도 않고 그런 곳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게 된 기적이 생겼다.

11일 아침 8시!

굉장히 낯설 줄 알았던 그 곳에서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무려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8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집중해서 마지막 절을 읽고 아멘을 합창하고 다음 장을 힘차게 외쳤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초스피드 성경 읽기에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벅했지만 조금씩 그 말투에 적응이 되면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한 말씀, 회개와 고백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찢리기도 하면서 신약의 한 권 한 권들이 넘어 갔다.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스트레칭을 하며 극복하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다. 또한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말씀을 읽음으로써 더욱 보람도 느껴지고 오히려 더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나 한다.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다음 번에는 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경회에 참석했으면 하는 기도를 한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인보드를 통해 본 성경통독사경회



▲ 성경통독사경회 싸인보드

- † 말씀이 육신이 되시듯 이 말씀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중윤 목사
- † 하나님의 목회의 목장에서 말씀으로 양육 받아 선한 양으로 살게 하소서-이웅선 장로
- †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항상 인도하소서-성준경 장로
- †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최종시 장로
- †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윤찬오 장로
- †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 이영기 장로
- † 주의 말씀으로 빛되게 하소서-이복규 장로
- †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선미 권사
- † 예언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소서-이영자 권사

- †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수 있게 하옵소서 -송성식 집사
- † 생명의 말씀 내 마음에 빛이 되었나이다-이호정
- †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양윤실
-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미현 · 최주미
- †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김동두 · 박두선 성도
- †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조근아
- †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이경선
- †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올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조은 · 노재균 · 최유현
- †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박성근

겨울 성경학교 - 추억거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의 장이 되어야...!!!

현대의 고도로 전문화 된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학교라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교육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즉,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더욱 힘써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상교육과 비교하면 교회가 가진 교육의 시간은 너무 적다. 일례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신앙교육시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교각 주당 2시간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세상교육에 대한 시간적 열세를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집중적인 신앙 훈련이 가능하며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성경학교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학교가 말씀과 찬양, 기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초등학교 이전부터 각종 영상물과 컴퓨터 게임이나 대형 놀이기구와 레저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고전적인 방법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각적이고 흥미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 등을 합리화하는 일부 교회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동시에 은혜도 받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현대적 장비나 아이터치들이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할 것은 참여하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해 혹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 정작 기본적인 말씀선포와 신앙적 재충전이라는 성경학교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학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행사이며 그에 맞게 성경에 기초를 두고 말씀과 신앙적 훈련을 기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행사이어야 한다. 이 같은 성경

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초를 성경학교에서 다져주면 그 경험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면 그야말로 남는 것 하나 없는 재미위주의 어정쩡한 교회행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교사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각 교회학교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쉽고 효과적인 예배와 말씀 전달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이들의 시각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로 인해 이번 겨울 성경학교 프로그램의 수준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에게 현재의 추억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과 열정이 있고,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살리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가르친다는 기본에 충실한다면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또 다시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점차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작금의 교회 성경 학교들에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

"전도합시다!"

목사님과 그의 인터뷰는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1999년 8월 서울교회에 부임하신 이래,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시며 70인 전도대를 지도하신 목사님다운 모습이다. 귀한 영혼들을 직접 대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과 물리적으로 크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늘 깨닫고 느끼기에 감사한 지난 3년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이규정 목사님.

목사님은 최은실 사모님과의 슬하에 이레(10), 인(7), 광(7) 세 아들을 두고 계신다. 막내 인이와 광이는 쌍둥이! 맏이 이레는 개구쟁이들의 맏이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의젓함이 있고, 서로의 사진을 몰라볼 정도로 닮은 두 막내는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한다. 아이들 양육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욱 열심이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질서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가정의 질서가 곧 영적인 질서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며, 나아가 믿음 역시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아주되 지킬 것은 지키고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 가정의 방침이다. 그래서 벽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수시로 암송하며, 가정예배를 깨우려 하지 않는다.

9, 10교구와 더불어 신혼가정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교역자가정을 찾아서 이규정 목사 가정 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이 왜 있는지, 누가 세우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신 형상과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면 감사가 끊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혼가정부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말단이요 친지들로부터는 신참이라 대소사가 많은 탓에 양적 부흥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그러나 3년간 지속적으로 정기 전도모임을 이어온 70인 전도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두 차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도학교를 수료한 정예부대가 그 결실

을 맺고 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인 전도는 그 어떤 이론적 설명보다도 실제로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일단 함께 시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이벤트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한 잊지 말자는 것이다. 맏이의 이름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심을 믿으면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없다(창 22:14)는 것이 목사님 가정의 가훈이다.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375장처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맘으로 섬기며 명령을 좇는 삶"이 그것이다.

목사님 가정은 항상 불평보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서울교회에 온 이후로, 1부 가족예배와 영어 성경공부반, 어린이 오후예배와 수요 오후예배 등으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것과 추수할 곡식이 많은 대치동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고령이 고향이신 이 목사님과 사투리 섞인 인터뷰는 그래서 더욱 힘이 넘쳤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목사님은 한마디로 답하셨다.

"전도합시다!"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죽어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열심을 내어 다함께 동참하자는 말씀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편집부(나소정)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문영순 집사(2교구)

2월5일 11시 루디아 여 전도회(63-58년생) 2월 월례회가 있는 6층 602호 (새 가족부실)에는 시작 전부터 찬양의 열기로 흥만하였다.

1부 경건회 때 상고한 에베소서5장 말씀 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회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고 자원하는 마음을 고무시켰다. 교회와 회원들의 기도제목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고, 기도해오던 암으로 투병중인 환우의 병세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렸다.

2월 월례회에는 재적 39명중 25명이 참석하였고 새가족부를 거친 6명의 신입회원을 기쁘게 맞아 주님께 감사드렸다.(1월엔 7명의 신입회원을 맞음) 또한 새가족부에서 루디아로 오는 회원들을 전화심방하며 루디아 소식과 월례회의 유익함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루디아 여 전도회에서는 농어촌교회2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몸 된 교회들을 도울 것인지 토의하였다. 특별히 전도하는 여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지

상 명령에 충실한 여전도회가 되고자 한다.

월례회가 과한 후 회원들은 청소도구를 지참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5층(교구실, 교역자실, 503호)을 깨끗하게 청소하였고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청소는 언제 끝났나 쉽게 짧은 시간에 끝나있었다.

청소 후 8층 만나 홀에서 있는 점심시간에는 사랑의 떡을 때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회장(김유경 집사) 이하 임원과 전 회원의 단합과 일치가 돋보였고 신입회원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 오랜 동안 지체로 지내온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라고 신입회원을 맞으며 함께 부른 찬양처럼 루디아 여전도회의 소망스러운 모습을 그려본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루디아 여 전도회의 소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귀한 월례회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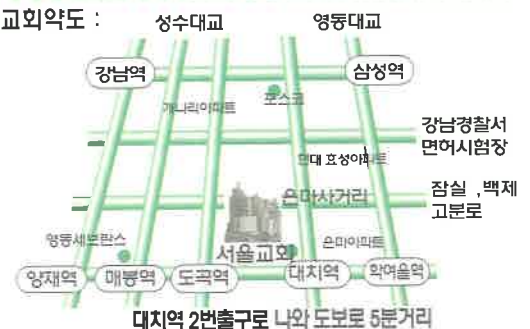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년도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2.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

† 비전2020 후원자

김인수(3구좌) 김찬진(3구좌) 김연주(2구좌) 나소정(1구좌) 노은선(4구좌) 문보순(1구좌) 박명석(3구좌) 박영주(3구좌)

† 태신자 명단(2월17일 현재)

고우영 임병수 김동규 김동민 김선희 조가상 이상혁 이정현 김민지

† 농어촌100교회운동결연 현황

115 방리교회 우지원, 116상만교회 초동부 교사
117 반석교회 최예순 (다음주 계속)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월)한국성경신학회 제9차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21일(목)기독교학술원 이사회22일(금)21세기노회정책사업계획위원회를 소집한다.

■ 독녀 : 김지희 성도(1-24)

■ 개업 : 황정옥 집사·경경자 집사(소백산 칼국수) 031)757-4583 성남 태평역 4거리

■ 이사 : 양인수 집사 · 이명희 집사 11교구로 424-4597

☑ 급주의 식사제공: 소정부 집사 · 강의자권사

저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